



무급 휴직자에 월 50만 원 지급...속도 내는 정부 지원책

기사입력 2020-04-26 20:17 최종수정 2020-04-26 20:45



내일부터 무급 휴직자는 50만원씩 나랏돈을 받고.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도 추가 편성됩니다.

코로나 19로 특히 어려운 분들부터,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겁니다.

홍유라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무급 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.

32만여 명에 이르는 무급 휴직자에게 한 명당, 월 50만 원씩,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만 지원하기로 했지만, 방침을 바꿔 1개월만 유급휴직한 뒤 무급으로 전환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

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애깁니다.

당장 소득이 줄어 걱정이 큰 직장인들은 반깁니다.

[무급 휴직자]

무급 휴직 3~4월 하다보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. 당장 정부에서 5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

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긴급대출도 편성됩니다.

기존 1차 대출은 연 1.5% 초저금리로 당초 12조원 규모로 마련됐다가 4조 4000억을 추가로 급히 늘렸지만 곧 소진될 예정입니다.

[은성수 / 금융위원장(지난 22일)]

"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..."

조만간 확정될 2차 대출은 10조 원 규모 입니다.

1차 대출보다는 금리가 올라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연 3~4%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
1차 때는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대출이 여러 은행으로 확대됩니다.

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

yura@donga.com

영상편집 : 유하영

꼭!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

물과 비누로 꼼꼼히
자주 손씻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

기침할 땐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기



발열, 기침 등
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


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

특히 노인·임산부·만성질환자 등은
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



마스크 착용하기



외출 자제, 1~2일 경과 관찰하며
집에서 휴식하기



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 자제
관할 보건소, 1339, 지역번호+120으로
먼저 상담하기



의료기관(선별진료소) 방문 시
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

*선별진료소 주소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

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,
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



의료인과 방역당국의
권고 잘 따르기

- ▶ '채널A' LIVE 무료 보기
- ▶ 네이버에서 '채널A' 구독하기
- ▶ [기사 보기] '31번 환자' 67일 만에 퇴원...최장기간 입원 사례 기록

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©CHANNEL A(www.ichannela.com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449&aid=0000190780>
